

# 광주시, '월봉서원 체험복합관' 건립사업 24일 착공

기대승 선비정신·민주인권 연계 110억 투입 지하1·지상2층 규모 2026년 준공... '서원 스테이' 조성 "호남 대표 힐링여행지로 도약"



월봉서원 체험복합관 조감도.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고봉 기대승 선생의 선비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심속 서원 스테이 '월봉서원 체험복합관'을 조성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대승 선생의 선비정신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연계한 월봉서원 체험복합관에 한옥마을을 확대, 호남의 대표 힐링여행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광주시는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986㎡ 규모의 월봉서원 체험복합관을 건립한다. 오는 24일 착공해 2026년 6월 준공이

목표다.

월봉서원 체험복합관은 기와팔작지붕의 전통한옥형 구조로, 한국전통 문화예술과 학습을 토론했고 강화하는 중·소강의실, 40~50명을 수용하는 연수시설, 다도를 체험하는 육예실 등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된다.

월봉서원 체험복합관 건립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며, 고봉 기대승 선생의 선비정신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연계해 광주에 머무르면서 한국전통 선비문화를 체험하는 복합기능을 갖춘 연수원으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7일 월봉서원 교육 체험관에서 월봉서원 광곡마을 주민들과 고봉 기대승 선생 문중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가진 후 본격적으로 건립사업에 들어갔다.

월봉서원 체험복합관이 완공되면 고봉 기대승의 학문과 선비정신을 체험하고 머무는 서원스테이로 거듭난다.

서원스테이는 서원에 체류하면서 전통 문화 및 예절을 체험하는 연수원을 지칭한다.

광주시는 인접한 문화재 월봉서원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고 퇴계 이황을 배향하는 안동의 도산서원 연수원과 연계해

영·호남의 한국전통 역사문화 교류에 나선 계획이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월봉서원 체험복합관은 광곡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대승 선생 문중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기대승 선생의 공동체 정신과 상호 우혜 덕분에 착공에 이르게 됐다"며 "앞으로 체험복합관이 완공되고 한옥마을로 발전하면 한옥과 전통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월봉 한옥마을이 조성돼 국내외 방문객이 장기 체류하면서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호남의 대표 힐링여행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 전남개발공사, '모두 누리공원 조성사업' 착공

도청 청사 앞 전면광장 일대 사계절 정원 콘셉트 열린 공간

전남개발공사는 지역사회 공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도청사 앞 전면광장 '모두 누리공원(가칭) 조성사업'에 착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동·청소년·가족 모두가 즐겨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순이익의 10%를 지역사회에 기부해왔으며, 현재까지 5년 동안 누적 기부액은 180억원에 이른다. 공원 조성에는 지난해 기부금 58억원 중 일부가 활용되며, 완공 후 전남도에 현물 기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원은 총 2만㎡ 규모로,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해 도청 청사 앞 전면광장의 기

존 노후 시설물과 포장 위주의 공간을 도심 친화적인 공공정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특히 사계절 정원 콘셉트를 반영해 △전남을 대표할 상징공간 △장미원 △축제꽃마당 △정원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곳곳에 그늘쉼터와 수공간을 배치해 계절마다 아름다운 공공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 중심부에는 열린마당을 조성해 '책 읽는 광장', '팝업 놀이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남개발공사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6월 전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7~8월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민 의견을 두 차례 수렴해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공원의 최종 명칭은 공개공모를 통해 결정하며, 2025년 9월 준공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디자인진흥원 현장방문

광주시의회 명진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과 의원들이 10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업무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광주 콘텐츠산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제공

## 광주교통공사, 재정 78억8천여만원 상반기 신속집행

광주교통공사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현안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주교통공사는 올해 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인 94억9000만원 가운데 78억86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목표치인 55억원(대상액의 58%)을 크게 웃도는 액수다. 공사는 지난해에도 행안부 목표 대비 126%를 달성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

어넣은 바 있다.

재정 신속집행이란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정책으로, 시장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갖는다. 이를 위해 공사는 신속 집행을 위한 각종 사업 절차의 빠른 이행, 선금 집행 활성화 등 정부 지침을 적극 실행하는 한편, 추진 상황 모니터링, 관련 애로사항 지원 및 우수부서 포상, 내부 평가 반영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펼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 광주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신용회복 지원

지원대상 전 연령으로 확대 채무액 5% 지원...1대1 상담

광주시가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중인 시민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용유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신청을 11월까지 받는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참여자에게는 1대1 채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 후 한국장학재단과 채무 분할 상환약정 체결을 선택한 경우 채무액의 5%(1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대상의 나이를 19~39세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해당 신용도 판단정보(연체정보) 해지, 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함께 재산 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해 채무로 인한 경제적 제약을 덜어준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는 경기집체가 지속되면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20년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2024년까지 214명을 지원했다.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에 해당되는 신용유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채무경감을 받지 않아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https://youth.gwangju.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올해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 공고문을 참조하고, 학자금대출 신용유의 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전화 1599-2250으로 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

## 전남도, 지역-대학 상생·발전 거버넌스 구축 전격음

전남형 RISE사업 계획 공유 '지속가능 동반성장' 목표

전남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대학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RISE센터는 10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전남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2025년 전남 RISE사업 시행계획 안내 및 사업공모 참여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강종철 전남도 인재육성 교육국장,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대학별 기획처장 및 산학협력단장, 관계기관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형 RISE사업의 5대(GRAND) 프로젝트, 15개 단위과제별

사업계획을 공유하며 사업계획서 작성 등 공모 절차를 설명하고 질의시간을 가졌다.

전남형 RISE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년간 30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지역특화 인재양성(G) △지역 산업혁신 챌린지(R) △전문직업 평생교육 허브센터(A) △초연결 공유캠퍼스(N) △역동적 대학-지역 동반성장(D)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동안 전남도와 전남RISE센터는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대학별 수요조사와 간담회, 자문위원회, 찾아가는 대학설명회 등 40여 차례에 걸쳐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RISE센터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19일 통합공고, 3월10일 사업계획서 접수, 3월 말 신청대학 평가를 거쳐 4

월까지 사업 추진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강종철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전남형 RISE사업을 통해 지역 신기술 개발과 글로벌 인재허브센터 구축, 대학과 전남의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경제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인재 육성의 원동력이 되도록 적극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역과 대학 주도로 추진되는 전남 RISE사업은 도 특성에 맞는 교육·연구를 촉진하고 급변하는 대외적 정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맞춤형 메가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지역 대학과 손을 맞잡고 성장하는 상생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 전남도, 중기 해외 판로 개척 바이어 초청 지원

항공료·통역비 등 최대 300만원

전남도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 본부는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 바이어 초청을 지원한다.

지원 사업은 해외 바이어를 전남으로 초청해 기업 현장에서 직접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수출 계약을 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20회 내외의 상담을 예산 한도에서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구매력 있는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구체적 상담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전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수출계약 실적에 따라 바이어 항공료, 통역, 체제비 등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하도록 실질적 지원에 나서겠다"며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